

10. 핵폭탄으로 인한 마이애미의 소멸과 바로 뒤 이은 휴거

2014.11.03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핵 폭탄으로 인한 마이애미의 소멸에 대한 꿈과, 이 꿈에 대한 메시지와 약속은 불과 며칠사이에 받은 것이에요.

저는 아열대 바다의 하얀 모래 해변에 있는 꿈을 꾸었고, 작은 어선 주변에 그물망과 원시적인 도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었어요. 맑은 날이었고 오전 중이나 이른 오후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물망을 청소하고 있었고 제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오른쪽 어깨 너머로 바다 건너편이 보였고 주먹 크기만한 구름이 수평선에 보였어요. 그것은 빠르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였고 점점 더 커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제가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핵폭탄을 맞은 것이었어요. 저는 외쳤어요... “오 주님!”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깬어요.

저는 즉시 이 꿈이 성령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자비를 위한 기도뿐이었어요. 그 후에 저는 그 도시의 위치를 찾아보았고 동부 바하마 해안에서 바라본 휴스턴, 혹은 쿠바해변에서 바라본 마이애미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애미였다는 것을 매우 확신해요.

주님 저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고 싶고,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제가 알아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넘어선 것들에 대해 파고들어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제 앞에는 청록색 바다 가장자리로 아름다운 백사장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해변을 따라 최대한 볼 수 있는 먼 곳에 큰 회색 덩어리들이 해안선을 따라 보였어요. 제가 그곳을 더 자세히 보았을 때 저는 그 덩어리들이 시체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저는 주님 쪽을 돌아보고 무거운 심정으로 여쭙보았어요. “저희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나소 (바하마의 수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대학살이 있을 거야. 몇 년전에 너가 받았던 메시지 기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 지구의 사는 의인들아!’

(클레어) 저는 그것을 기억해요. 이 메시지의 끝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 저는 이제 바하마와 마이애미 사이의 지구위에서 멈췄어요. 예수님은 울고 계셨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곳은 검은 한 덩어리 같이 보였어요. 저희는 한번 가까이서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움직이는 생존자는 없었어요.

(예수님)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니?

(클레어) 무감각함이 저의 존재 전체를 삼켰고 저는 단순하게 제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도 너는 여전히 지구에 있을 거야. 하지만 그 후에 정말 빠르게 너희 둘은 휴거 되어 질거야.

(클레어) 저는 여쭙봤어요.. 주님 이 상황이 일어난 후에 언제 저희를 휴거해 가실 건가요?

(예수님) 일주일 안에.

(클레어) 7일이요?

(예수님) 그게 최대야. 그 시점 이후에는 너희들이 지구에 있을 이유가 없어.

(클레어) 주님,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런 학살은 한번도 전에 지구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어. 인류가 나의 창조물에 이런 종류의 피해를 가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어. 종말이 곧 다가오지 않았다면 나는 개입하였을 것이지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 너는 지구를 빠르게 떠나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사재기할 필요도 없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부족하지도 않아.

(클레어)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저에게 매우 흥미로웠어요. 저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푸드뱅크(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음식을 얻는 곳)를 하는데, 저는 음식을 추가해서 주문하려고 하였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 아니,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클레어)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음식들을 나누어 주고 추가로 주문하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저는 그때에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주님이 저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남기고 떠나는 것을 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한가지는 확실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해요. 자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어떠한 제한적인 선이 없지만 특정한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해요. 세상과 이 사건들에 영향이 있는 이 영혼들에게 가능한한 가장 큰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기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과 저희들의 마음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회심의 은혜를 위해서요. 이 환영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 하셨어요..

(예수님) 칼에 찔릴 운명인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해줘라. 만약 너희들이 이 사건들 가운데 있고 이 문화에 대한 죄가 없고 회개하고 내안에서 다시 형성되었다면 순교의 면류관을 쓸 것이고 천국에서 큰 영광이 될 것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의 영혼은 온전하게 살아남았고, 방탕하고, 무모하고 경건하지 않은 세대 속에서 나에게 신실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으로 조롱에서부터 배제당함까지 많은 고통을 당하였어. 나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능욕당할 때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너희들의 보상이 있을 거야.

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면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임을 알고 있거라. 그때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큰 환난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고 너희들에 대한 천국의 환영은 잔치와 즐거움의 행사가 될 거야. 너희들의 지구에서의 유배시간은 거의 끝났어.

(클레어) 이제 주님께서 몇 년 전에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남미에 사역여행 중이었고 저는 마치 우주 왕복선에서 나온 것처럼 깊고 푸른 하늘의 둥근 모습을 보았어요. 제 앞에 보이는 지구는 깨끗하였는데 순간 대륙간 미사일들이 발사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미사일들은 중동에서 발사되었던 것 같아보였고 미국에 떨어졌어요. 그 미사일들이 떨어졌을 때 회색 연기 구름이 그 지역에 자욱하였고 7월 4일의 불꽃놀이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좌까지 솟아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간 그 불꽃들은 의인들의 영혼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 지구의 사는 의인들아!'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보다시피 나는 지구를 황폐화 시킬거야. 하지만 내가 만든 계획이 아닌 인류 중에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가난한 자를 강탈한 너희들도 한탄하고 통곡할 거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 너희들이 계획한 것들은 너희들 자신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거야.

진실로 이것은 너희를 위해 기록 되어 있어..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것이며 남에게 돌을 굴러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돌에 치에게 될 것이다.' (잠언 26장 27절)

인류 중에 있는 악한 사람들아. 너희들의 위대한 파괴의 시간이 너희들에게 왔다. 하지만 나의 의로운 사람들은 별들처럼 빛날 것이다. 의로운 사람들아, 죽음의 시간을 두려워

하지말아라. 그날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고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줄 거야.

세상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계획하는 동안 그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

‘너희는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고 무덤과 조약을 맺었다. 우리에게는 거짓과 허위라는 은신처가 있으니 아무리 재앙이 밀어닥쳐도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 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놓아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놀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의와 공평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원수들이 폭풍처럼 밀어닥쳐 너희가 의지하던 거짓의 은신처를 부숴 버릴 것이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너희가 무덤과 맺은 조약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며 재앙이 덮칠 때 너희가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사야 28장 15~18절)

(클레어)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고, 이 모든 재앙을 계획한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에요.

미국을 파괴하고 세계인구를 말살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이 때를 위해 그들 자신을 준비하고, 저희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만든 계획과 음모들은 자세하게 찾아보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의인들을 데려갈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로 별처럼 천국으로 올라갈거예요.